

“40년 외과의사 외길, 후회는 없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전호성



신장과 췌장 이식 분야에서 국내 최대 건수의 수술을 시행한 한덕종 교수는 환자들의 이식 거부반응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 **한덕종 교수**: 1949년 서울에서 2남5녀의 셋째이자 장남으로 출생. 경기중·고, 서울대 의대, 같은 대학 의과대학원 졸업(의학박사). 미국 미네소타대학 부속병원 장기이식연구소 연구원, 한림대 의대 교수 거쳐 1990년부터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일반외과 교수로 근무, 현재 울산대 의대 명예교수,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소장·외과 주임 교수·과장, 대한이식학회 회장·이사장 등 역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울산대학교 2006년 올해의 교수상, 생명의상, 대한이식학회 연구자상, 옥조근조훈장 등 수상 및 수훈. 산부인과 의사인 부인과의 사이에 1남1녀.

한덕중(67) 서울아산병원 일반외과 교수는 흔히 ‘신장과 췌장 이식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불린다. 신·췌장 이식의 국내 최초와 최다·최단 업적 보유자인 한 교수는 1985년 신장 이식을 처음 시작하여 뇌사자 신장 및 췌장 동시이식에 국내 최초로 성공했고(1992. 7), 다시 국내 처음으로 췌장 단독이식에 성공했다(199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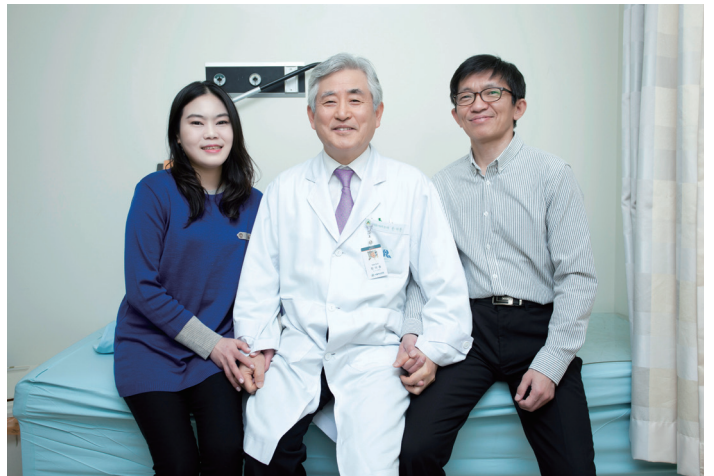
국내 최다인 4,664례의 신장 이식을 시행한 한 교수는 췌장 이식 또한 국내 최다인 352례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췌장 이식의 67%를 차지하는 수치다.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장 이식은 보편화되었지만, 췌장 이식은 수술 기법과 수술 성공률이 향상되고 있는 영역이어서 한 교수는 이식 분야의 불모지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혈액형이 맞지 않은 환자의 신장 이식을 활성화시켰으며, 사람백혈구항원(HLA)에 대한 항체반응을 극복하고 신장 이식을 가장 많이 시행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한 교수의 업적이다. 또한 2010년 뇌사자 장기이식법의 개정을 주도하면서 뇌사자 장기이식에 기여했고, 이식 거부반응을 낮추기 위한 연구 등 다양한 이식 관련 논문을 국내외에서 발표하면서 연구하는 외과의사의 모범을 보였다. 한 교수의 연구 덕분에 신장과 췌장의 최근 이식 성공률은 각각 국내외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인 98%와 97%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인생의 신의 한 수”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합병증 때문이다. 혈당이 너무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발생하는 급성 합병증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식의 이상이 발생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만성 합병증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기는데 동맥경화나 시력 상실, 만성 신부전, 상하지의 감각 저하 및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덕중 교수는 특히 췌장 이식을 통해 당뇨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정원(35) 씨는 5세 때 소아당뇨 판정을 받았다. 열이 심하게 나는 감기에 걸리면 보통 1년 동안 낫지 않았고, 놀다가 갑자기 쓰러진 뒤 응급실에서 눈을 뜨는 상황이 반복됐다. 나이가 들면서 팔이나 배 등에 인슐린 주사를 하루 3회 놓았고, 매일 20회 가까이 혈당 체크를 해야 했다. 인슐린 주사를 놓다가 마약 투약 아닌가 하



신·췌장 동시이식을 받고 당뇨병을 완치한 러시아 환자 타티야나(37) 씨가 남편, 한덕중 교수와 함께했다. 그녀는 혈액형이 다른 아버지에게서 신장과 췌장 일부를 받아 국내 최초의 혈액형 부적합 신·췌장 동시이식을 기록했다(위, 2012. 4). 아래 사진은 각각 2015년과 2000년에 신·췌장을 동시에 이식받고 당뇨병에서 벗어난 최정원(왼쪽·35), 송범식(51) 씨가 ‘생명의 은인’인 한 교수와 함께한 모습.

는 오해도 받았고, 혈당 체크를 너무 자주해서 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질 지경이 됐다. 하루라도 몸에 주사바늘을 찌르지 않는 게 꿈이었던 그녀는 2015년 5월 한덕중 교수에게 신·췌장 동시이식 수술을 받고 소원을 이루었다.

“2008년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시작했어요. 1주일에 3~4회, 대어섯 시간씩 투석을 받다보면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한덕중 교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2009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장기이식을 신청했고, 대기자가 많아 6년 만에 수술을 받았어요.”

이식 뒤 바로 인슐린 주사를 끊었다는 그녀는 자신에게 보통 사람의 삶을 살게 해준 한덕중 교수를 “제 인생의 신의 한 수”라고 표현했다.

“길을 걷다가도 한 교수님과, 누군지 모를 장기 기증자분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에 괜히 눈물이 나요. 제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한덕중 교수(오른쪽)는 신장과 췌장 이식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뇌사자 신장 및 췌장 동시이식과 췌장 단독이식 등을 성공시킴써 새로운 치료의 장을 개척했다.

사는 것이 한 교수님과 공여자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22세에 당뇨병이 생긴 송범식(51) 씨도 저혈당으로 인한 위기를 여러 번 겪었다. 혈당이 떨어지면 쇼크로 실신하기 일췌였고, 직장을 다닐 때는 동료들 눈을 피해 화장실에 가서 인슐린 주사를 놓았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까지 기능을 못 해 일을 그만두자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을 생각을 했다. 2000년에 한덕중 교수 얘기를 듣고 서울아산병원에 와서 “이렇게 사느니 수술 받다 죽는 게 더 낫다”면서 이식을 신청했고, 운 좋게도 4일 만에 신·췌장 동시이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 뒤 바로 인슐린과 투석을 끊고 새 삶을 찾았어요. 수술 5년 뒤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고,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하루 두 번 면역억제제를 먹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당뇨병을 앓던 때의 고생과는 비교가 안 되죠. 이식받은 지 17년 됐는데 앞으로도 건강관리를 잘 해서 신장과 췌장을 이식받고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한 교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췌장의 심장 이식하는 유일한 의사”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준 ‘구세주’로 기억되는 한덕중 교수는 의사의 숙명을 타고났는지도 모른다.

한 교수는 1949년 12월 서울 신문로에서 2남5녀의 셋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다. 6개월 뒤 6·25가 발발하자 가족 품에 안겨 피난 길에 오른 그는 왼손 중지에 생인손을 앓았다. 손가락은 굵아 들어

가는데 치료받을 곳이 없어 가족들이 받을 구를 때 곁을 지나던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불에 달군 칼로 손가락을 찢고 수술을 해주었다. 한 교수는 이 일을 최악의 환경에서 죽을 수도 있던 아기에게 외과 의사의 운명을 지워준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에게 의사의 길을 제시한 또 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공무원의 길을 걷던 아버지의 원래 꿈은 의사였다. 아버지는 장남인 그를 통해 못 이룬 꿈을 달성하고자 했고,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그에게 수술 도구를 선물로 사다 주었다. 그가 경기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전문위원이었던 아버지는 그를 국방부로 데려갔다. 안면 있는 장군들에게 미래의 의사인 아들을 자랑하고 싶어서였다.

의대에 다니면서 자연스레 외과를 지망했지만, 그때는 장기 이식이 활발하지 않을 때여서 이식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병무청 신검군의관(소령)으로 전역하고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 취직해 다니던 1985년 한림대 이사장의 권유로 신장 이식을 시작했다. 1986년 5월부터 1년여 동안은 장기 이식의 메카인 미국 미네소타 대학병원에서 췌장 이식의 선구자인 데이비드 서덜랜드 교수 등에게 연수를 받으며 임상경험을 열심히 쌓았다.

“이식을 시작한 1985년부터 2년 전까지 잠은 실험용 쥐가 수천 마리에 이를 것”이라고 한 교수는 말한다. 그가 개인 연구실에 자비로 구입한 수술 현미경을 비치하여 쥐의 심장 이식을 반복한 일화는 유명하다. 미네소타대학에 연수 갔을 때도 “영어와 인물, 능력 모두 떨어지지만 내가 쥐에서 심장을 이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자부심으로 버텼다”고 한다.

1987년 8월 귀국한 그는 췌장 이식에 도전했으나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1990년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1992년 마침내 국내최초로 췌장 이식에 성공하면서 장기 이식에 새 지평을 열었다.

한 교수는 40년 의사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환자가 셀 수 없이 많지만 1990년 1월 뇌사자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여자 환자를 첫 손에 꼽았다. 당시 방법대원이었던 뇌사자는 새벽근무 중에 오토

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사를 당했다. 수여자는 임신중독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몇 년째 혈관투석으로 연명하던 환자였다. 성공적인 수술 뒤에 한 교수는 살인죄로 기소됐다. 뇌사자의 장기이식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였다. 한 교수가 검찰에 불러 다니자 환자가 직접 구명운동에 나섰다. 법원과 검찰에 진정서를 내고, 마스크에 관련 글을 기고하면서 이 일은 탈 없이 해결됐다.

환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몸이 회복되지 않은 환자가 한 교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그가 평소에 환자들에게 보인 자세 덕일 것이다. 한 교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료에 매진하고, 환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보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식은 수술뿐만이 아니라 수술 후 관리가 만만치 않은 분야다. 한 교수와 함께 이식 파트에서 일한 동료들은 “수술 전후의 과정을 직접 챙기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모습에서 환자에 대한 애정을 느꼈다”고 말한다. 환자와 그 가족들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우리 말에 귀 기울여주셔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2015년 2월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일반외과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한 뒤 명예교수가 된 한 교수는 지금도 아침 7시쯤 서울 아산병원에 출근한다. 화·금요일은 외래 진료를 보고, 월·목요일에는 수술을 한다. 그를 찾는 환자가 많아서 보통 진료실 4개를 열어 놓고 외래를 보며, 수술은 4개월 정도 스케줄이 밀려있다. 한 달에 세 번은 수술 때문에 귀가하지 못한다. 신·췌장 동시이식 수술은 최소한 7~8시간이 걸리는 탓이다. 췌장 단독이식은 여기에서 1~2시간 당겨진다.

수술에 전념할 체력이 중요해서 매주 토요일 혼자 검단산을 등산하며 체력을 관리한다. 시간 여유 있을 때는 이식팀과 소백산 등을 오르고, 1년에 두어 번 지리산과 설악산에도 간다. 골프는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 즐기지 않는다.

후배들에게 우직하게 한 길을 걸어온 의사, 환자들에게 충실한 의사로 기억되고 싶은 것이 한 교수의 바람이다. 수술이 새벽 3~4시에 끝나도 아침 7시30분에는 어김없이 회진을 도는 것도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다.

한덕중 교수는 2015년에 외교부 산하의 교육봉사단체인 사단



동료 의사들은 한덕중 교수에 대해 “외과 의사로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으면서도 항상 겸손하고 주변사람을 배려하는 인품을 지녔고, 이식 면역학과 감염학·내분비학 등 관련 분야에 대해 늘 연구하는 학자의 모습을 보인다”고 말한다.

법인 의료지도자협의회(MLC)를 구성해 회장을 맡았다. 정년을 맞았거나 정년을 앞둔 대학병원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MLC는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등 저개발 국가의 의료인을 교육하는 한편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대상의 의료봉사와 새터민 의료인 양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가족으로는 1982년 결혼한 부인(신수은·62)과의 사이에 1남 1녀가 있다. 한 교수는 자신의 정년기념문집인 <40g의 기적>에서 ‘나는 성격이 모나고 고집이 세다. 나의 그런 면을 다독일 줄 아는 아내는 여섯 살 어리지만 나보다 어른스러울 때가 많다’면서 부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부인은 경기도 남양주의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컴퓨터를 전공한 딸(정민·34)은 SK에 근무 중이며, 아들(정훈·32)은 미국 시카고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다. 📖